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

기도서 509 면

제 1 독서 : 마카하6, 18. 21. 24-31

제 2 독서 : 로 마 8, 31b-39

복 음 : 요 한 17, 11b-19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쉬어가는 행복

김진소 신부

스군, 육중한 들녘이 세월의 피곤함을 생각하며 쉬게 하네. 사람의 몸에 지닌 황금빛은 별 불일 없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데, 자연이 지닌 황금빛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치성을 드리는 할머니의 모습 같네 그려. 지난 8월 도보순례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내 편지를 하겠다고 버르다가 이지경으로 늦었네.

스군, 도보순례 행사의 중점을 해성학교로 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모르겠군. 순교정신으로 교구사목을 이끄시겠다는 주교님의 의지나 순교정신의 현장체험으로 가졌던 도보순례의 중점이 한 장소에서 마주쳤으니 말일세. 순교는 겸손한 사람이 예수의 정신에 정복당하는 삶이 아닌가.

스군, 우리가 해성학교 정문에 들어섰을 때 마치 160리 뜨거운 순례길을 마치는 우리를 영접이라도 하려는 양 착좌석에 참석하신 분들이 늘어섰더군. 스군이 불뼉은 소리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행렬을 시장 사람이나 만나듯이 무덤덤한 표정이라고 투덜댄 것도 그런 착각의 무념일세.

스군 무관심과 무표정은 그분들대로의 이유가 있었거야. 순교는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역사의 폭력이 아니었다. 순교정신은 무관심한 역사 앞에서 자기의 일을 다하며 가야할 길을 끝까지 걸는 것 아닌가. 순교자는 남을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순교자는 분노를 웃음으로, 증오의 칼부림을 춤으로 맞이한거야.

순교자현양은 영웅숭배이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자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야. 우리에게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처지에 따라 실천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가능한 노래이지. 순교자는 자기 본능을 초월한 사람일세. 연약한 꽃씨가 두꺼운 땅을 밀고 오르듯 단단한 인간의 본능을 뚫고 솟은 연한 믿음일게구먼. 인간의 본능은 현실이나 찰나를 좋아하는 것 같더군. 그래서 신앙도 감각주의, 지금 당장주의,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미신화 현상을 저지르고 마는 것 같더군.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실사 만난 사람처럼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지. 그건 모두 사름 병일 뿐이야.

우리가 못나서 더 고달픈 생의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는 행복을 순교자의 말에 깊이 마셨으면 세상은 더 살찌겠지. 생각하는 계절의 여울목에서 순교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군. 기도하며 만나세.

(대학생 연합회 지도신부)



관심있는가?

1. 우리 교구에 어린이 주보가 신을 뵈지 이제 두 달이다.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 지를 몰라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 주보가 고작 3천부 조금 못되게 나간다고 한다. 교구 사목국이 만든 교세통계표를 보면 국민학교 어린이가 1만명에서 조금 모자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보는 어린이 3명에 1장 꼴도 못되게 보급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소는 2백이 가까운데 주보를 받아보는 공소가 고작 다섯 군데 뿐이다. 시골에 사는 것만도 조금은 억울한데(?), 교회에서 초차 무대접을 받는 셈이다.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10년이나 20년 뒤에 닥쳐올 결과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세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서로를 못믿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교육에, 특히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추석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한 해의 거둬들임 감사드리고, 식구들끼리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며 조상들을 기억하는 명절이다. 그런데도 그 둥근 달에 가슴을 짓눌리는 형제자매가 있다. 갖가지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최근에 해고된 대창 메리야쓰의 아가씨들이 맘에 걸린다. 몇 푼 안되는 봉급에 젊음을 걸었던 그들이 이제 설자리를 빼앗긴 것이다. 이제와서 그들이 J·O·C 회원이든, 도산회원이든 따지지 말자. 다만 우리들의 너리에서 잊혀져가고 있음만을 기억해내자. 그리고 한 쪽의 송편이라도 나눌 길을 찾자. 그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니까.

3. 다음 주일은 또 군인주일이다. 기계처럼 성당을 오가지만 말고, 무언가를 좀 기억하며 살자. 군대간 자식과 형제, 군중신부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보자. 그리고 가진바를 좀 나누자. 오늘, 복자축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말이다. 관심 좀 갖자.

숲 정 이 산책



죽은이와 산이가 대화하는 기회

복자 성월에

박 세 레 나

나의 딸 에디타에게
에디타, 네가 태어난 9월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아름다운 복자성월이란다. 순교 성지 중 가장 유명한 이 고장 전주에서 영세를 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지 일 년이 지난 오늘의 복자 성월은 여느 해보다 값지고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다.

에디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너에게 복자성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우리 한국 전주 교회는 18세기 말 열에 직접 전교를 받은 일 없이 다만 하느님의 크신 성총으로 이 땅을 비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원이 특이하다. 순교자에게는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에는 많은 고통과 박해가 잇달았으니,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의연히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고, 사치하고 안온한 생활을 박차버리고 한결같이 용맹히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기도와 독서, 수덕에 전심하여 이에 결국 외교인들도 탄복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

에디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순교 정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함께 우리 생활을 반성하여 보자.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감히 말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약하구나. 그러나,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온 누리에 임하는 간절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

에디타!
앞으로 네가 맞이할 너의 세대는, 험난 속에서 항상 깨어나,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로 나아가도록 엄마는 간절한 기도하며 순교자의 그 참된 뜻이 영구히 너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게 노력하도록 하자.

<노충동 천주교회>

영광의 녀들이시여!

박 요 한

스스로 떠나 찾아온
진리를 지키고자
피의 땀을 치르신
거룩한 녀들이시여!
당신들의 항구함은
저 이스라엘의 출애굽만큼이나
힘겨웠을 것이다.

파라오의 완고함처럼
유교가 진리의 최고봉인양
고집하던 유생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위협이었기에
고난은 시작되었나이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설은 땅을 찾아야만 했고
동료들의 배반을 겪으며
진리를 지키기에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셨으며
고초와 고문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셨나이다.

영광의 녀들이시여!
당신들을 잊지 않는 후손들에게
항구의 정신을 박아주시어
용감한 주님의 용사되게 하소서.

<삼례천주교회>

※ 이 시를 쓰신 분은 자필로 글을 쓸 수 없어 대필로 쓰셔야만 했습니다.

□ 복자 샤스땅 신부의 서한

마카오에서 1833년 8월 31일(양력)

“내가 기껏해야 여덟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내 어머님은 벌써 내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매일 하시는 일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께 받았으니 저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의 정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아, 자비의 아버지이신 천주께 그 자비를 양친 위에 풍성히 내려주시고 복음에 약속하신대로 백 배로 갚아 주시며, 나아가서는永生을 주시기를 비는 것 밖에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형제를 포용하고 영원히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겸손되이 순명하는 아들
교황파견 선교사 약그·오노레·샤스땅 올림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주단·포복(혼수·회갑옷)
갑)도매상
각종 속, 이블(핑크)카베지
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 코트의 명문
버 킹 검 런 던 포 그
(주) 유 율리안나
간이복·섬인용
아동용·주니어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위 크 엔 드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 교구 평협, 제1차 「신앙대회」 갖기로

교구 평협은 지난 18일 상임위원과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82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방문사도직을 계속하고 신앙대회를 갖기로 했다.

신앙대회는 평신도 사도적 일선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반성과 재다짐은 물론 친교를 나누는 모임이다. 대회는 오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대상은 ① 사도회 임원, ② 공소회장, ③ 제단체의 임원, ④ 농민회원, ⑤ J·O·C회원, ⑥ 대학생들이다. 이날은 추수감사제도 겸하게 되어 풍성한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자들의 빠짐없는 참석이 요망된다.

한편, 10월 16~17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본당 사도회장단과 교구단위 단체장의 피정을 결합 연수회가 있게 된다.

□ 고산본당 농민 대회

지난 12일 고산 본당 농민회는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다짐으로 농민대회를 가졌다. 그 지역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님을 비롯하여 고산본당 관할의 회원과 비신자 등 2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주제 강의는 농산물 공해의 실태와 해결책에 관해서였는데, 오늘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농산물 공해의 해결책으로 미생물 농법에 관한 강의에 이어 성공사례 발표와 실습이 있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후에는 친목을 도모하는 잔치와 농악, 탈춤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 대회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고, 농민회를 통한 농촌사목의 중요성과 농촌교회의 활성화가 시도되었다고 본다.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성심부녀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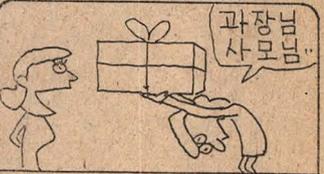
□ 전답 2,650평을 헌납하신 고 김재선(마태오)씨

독실한 교우로 전교에도 많은 공헌을 하신 부안본당 고 김 재선(마태오) 형제께서는 전답 2,650평을 교회에 헌납하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유족들은 교인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셨다, 교회는 고인께 감사하는 뜻으로 매년 2개의 미사를 드리기로 했다. 현재 유족으로는 미망인 배 서실(세실리아) 여사와 따님 5분이 계시는데 그 중 동정을 지키시는 김 정순(발바라)씨께서도 전답 9,308평을 본인이 죽은 후 교회에 헌납하기로 하셨다. 교회는 이분을 위해서도 매년 2개의 미사를 드릴 예정이다. 하느님께 받은 재물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이분들의 순수한 믿음의 행위는 빛이 되어 어두운 우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밝혀주는 듯하다.

□ 차례(茶禮)에 가톨릭 전례의식을 도입

2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 곳곳에서 토착화란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 속에 서울 흥제동 본당(주임 김 수창 신부)은 오는 추석명절을 기해 각 가정에서 지내는 차례에 가톨릭 전례의식을 도입한 절충식 차례예식 절차를 제시하고 차례를 지내도록 권장,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준비단계, 미사, 차례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이 의식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을 더욱 뜻있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9월 5일자 가톨릭신문 3면, 경향잡지 9월호 58-59면에 실려있다.

요심이 (477) 김병오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W.B.S (※ 수도원 등록상표)

(간(肝), 위(胃), 암에 특효)

성모 土龍 쎄타

(聖 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 *이리: (명보여관 앞) ⑧8253
- *군산: (팔마분수대 앞) ⑧4340
- *전주: (호남약국 2층) ⑧3257
- *정읍: (전화국 앞) 8058
- ◎ 본점: 전주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⑧8091

김 미 카 엘

숲정이슈퍼마켓

전화 주문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 ③ 3550

김원겸(시릴로) · 박효송

피아노 연주회

장동주 문하생

교우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 82. 9. 29(수) 19:30

곳: 예술회관 3층 공연장

(구 시민문화관)

교습소: 코리아극장 사거리

전화 ③ 3064

직원 채용 공고

모집인원: 남자 ○명

자 격: 전주시내 거주자로 고졸이상 30세 이하

병역필, 면제자, 추산 부기 3급 이상인 자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서,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각 1부

접 수: 82. 9. 20~9. 30 17시

전형방법: 필기, 실기, 면접

전형일시 및 장소: 82. 10. 5 14시 당 신협 사무실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 성

전주시 효자동 1가 194(전화 ④455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순교 복자 축일 : 각 분당별 행사에 참여합니다

1. 제 4 지구 주일학교 합창 경연대회 : 일시-오늘 오후 2시
장소-성심여중·고 강당, 2시-미사(주교님 집전), 3시-대회
2. 가톨릭센터 예비자교리 휴강 : 30일<목>, 2일<토> 추석 연휴로 휴강합니다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교회 공동묘지, 주례-박 주교님
4. 제 6 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및 체육대회 : 일시-10월 9일, 장소-무주 천주교회
5. 전국 신앙대회 : 일시-10월 9일, 장소-춘천
6. 축! 영명 : 27일-성 빈첸시오 이 병호 신부님, 29일-미카엘 박 정일 주교님, 박 찬길 신부님, 가브리엘 안 용기, 박 중상 신부님, 라파엘 김 중길, 범 영배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수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 다니엘 7장~13장, 욥기 1~3장
- 1. 견진 : 10월 31일 견진 하실분 10일 까지 신청 바람
- 2. 프란치스코 삼회 : 오후 2시 강당
-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 오전 6시, 오후 7시
(분당 10시 30분 미사없고 묘지에서 있습니다)
조상들을 위한 위령미사에 많이 참여 하시기 바람
- 4. 성전 신축 기금 모금 세일 : 오늘 성당에서
플북-제일모직 라보메 발라드 숙녀부, 렌드로바, 아동부, 잡기름, 비누, 미원, 식용유
- 5. 성전 신축 헌금
문정현·진용순·강대원(각 50만원), 소정자(1백만 원), 최상운(25만원), 김장홍·김형덕·최순주(각 15만원), 김중순·이경돈·오홍식·김일래·양우신·김한오·이안순·조인숙·전옥남·윤보선·임효숙·송경아·임정아(각 10만원), 허순자(3만원), 홍주자·이동순·차판례·이복례·이음식(각 5만원), 김점순(5천원), 강방자(150만원), 임옥희(2만원), 강영우(20만원), 김중훈(12만원)
신축헌금 계 : 88,173,000원
81·82년 영세자 : 미사후 강당으로 모이세요
- 지난주 봉헌금 : 715,737원 교무금 : 491,400원
감사헌금 : 김희순(2만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032
수임 신부 김성팔
보좌 신부 박성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일<금> 새벽 6시, (기도회 없이) ※ 선영들을 위해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 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재림(비사법)원 방문 : 오늘 학생미사 후, 대학생회 주최, 중·고 학생도 같이 가니 많은 참여 바람
4. 금주의 성경읽기 : 루카복음 전체
5. 예비자 교리안내 : 일반-매주<후>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6. 쟈 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미사-〈일〉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 331,920원 교무금 : 289,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수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일 저녁 8시 선영들을 기억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2. 진복회·부녀회 : 월례회의
3. 미사시간 변경 :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4. 10월 1일 어머니 미사는 없습니다 (금주) 그날 레지오 팀은 다른 날로 택하세요
5. 분당 후보축일 : 3일, 분당 발전을 위한 기도 바람
6. 사도회 월례회의 : 다음주
7. 주일학교 성가 합창대회 : 2시 성심교, 어린이는 12시 30분까지 성당 집합, 어린이 교리 미사 없음
- 지난주 봉헌금 : 538,95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수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애령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 철레 7 : 10월 2일 저녁 7시
3. 첫 철레 5 : 10월 7일 저녁 7시
3. 반 미사 및 성시간 : 28일<화> 태평동 4·5·6·7반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금> 저녁 7시 미사 미사 예물은 3일 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오늘 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 정동민 ③ 노순덕
추석 합동 위령미사
해설-유덕열, 독서-① 김인식 ② 이경호
다음주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 이갑진 ③ 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 368,6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수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규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유아세례 : 다음 주일 9시 30분 시간 엄수바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1일<금> 오전 6시, 10시 먼저 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예물 봉헌합니다
4. 미사시간 변경 : 새벽 5시 30분을 6시로
5.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강기호 ② 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 246,185원 교무금 : 162,000원

(숲정미) 전화 ⑦3766 수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요안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 월례회 : 10월 2일 토요일
3. 사도회 월례회 : 10월 3일 공식미사 후
4. 복자 현양대회 : 오늘, 성서학교 치명탑 오전 10시 아침·저녁·아동미사 모두 없음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일 오전 6시 30분
6. 주일 아동 성가 경연대회 : 2시 성심학교
7. 차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①박대규 ②이규철 기도-이강노
8. 미사 참례자 안내 : 황화순, 유봉례, 오귀례, 오옥동 유희자, 반경자
- 지난주 봉헌금 : 467,970원

(전동) 전화 수부 ⑥6208 수임 신부 김병업 사부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 다음주 8시 30분 미사후
4. 설가정회 : 10월 5일 오후 2시 30분
5. 전동 뿌리아 창설 : 26일 2시, 사제관, Pr 간부참석
6. 자도회 임원개편 : 회장-이귀남(누시아) 부회장-이선경(수산나), 유기남(테레사) 회계-이귀남(말다), 서기-김현자(세시리아)
7. 추석 합동 위령미사
8. 중·고생 예비자 교리 : 매주<토> 오후 3시 30분
9. 주일학교 성가 합창 경연대회 : 2시, 성심학교
10. 주일학교 성지순례 : 잘 다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연 ②범덕배
공식미사 : 해설-이운영, 독서-①이영태 ②양원홍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51,380원

(파티마) 수부 ⑥0915 수녀 ②4804 수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축! 환영 : 영세자 : 지난주 82명이 영세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
2. 어린이 성가 합창 경연대회 : 2시 성심학교, 3시반 미사 없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일 아침 6시 30분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에 없습니다
5. 뿌리아 회합 : 다음주 오후 2시
6. 추석일에 있는 Pr 회합 3팀 : 앞당겨 실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210,830원 교무금 : 281,000원